정보문화재 구성원리속 미래통신어

학술특집

국어정보학회의 컴퓨터언어 한글화 작업의 의미

진 용 옥
(공대 교수 : 정보통신공학)

잘 알려진 것처럼 한글은 소리나는 기관을 모습대로 본뜨고 이를 부호화한 문자 체계이다. 어금니, 혀, 입술, 이, 목구멍 등의 모습을 본떠서 5개의 닿소리 기호를 만들고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3개의 홀소리 기호와 함께 모합 8개를 기본으로 하였다. 8개의 기본 홀닿소리는 8깍지 묶음을 형성하고 있다. 이른바 바이트(8비트) 구조와 통한다. 5개의 기본 닿소리에는 된소리의 정도에 따라 1회씩을 거쳐 나간다. 반면 홀소리는 사람과 땅을 상징하는 기호에다 하늘 상징 기호를 조합하여 만든다. 형성된 닿소리를 다시 90도를 회전시켜 또다시 4개의 홀소리를 만든다. 이와같이 90도 회전 시킨다는 것은 검모양은 같지만 위상을 달리 한다. 예를 들어 ○○○○는 기본적인 모양은 같지만 90도씩 위상이 분할된 형태이다. 이는 현대 정보전송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위상 변조 방식과 그원리가 동일하다. 진리는 동서양이라고 달라지지 않음을 확신케 하며 현재도 전산 자료통신에 널리 이용되는 변조방식이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8개의 기본자모는 1점 1회의 가획 원칙에 따라 28홀닿소리로 확장된다. 28자모가 원것은 하늘별자리 28宿과 일치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28자 중에서 몇가지는 복합시켜 또다시 67개의 자모로 확장된다. 형상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도 있으며 다시 조중종성으로 조합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기호를 구분하게 되는 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이론상 1억8천6백만의 음절을 만들수 있었다.

한자가 5만자 정도임에 비춰볼때 실로 가공할만한 문자 생성 능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스럽다해서 간소화시키고 말았으니 애석한 일이다.

붕화는 붕수(燧燈) 라고도 하는데 이는 방에는 횃불<燧>, 낮에는 연기<燈>로 보내기 때문이다. 파발마를 달려서 직접 소식을 전하는 것과는 달리 불빛에다 정보를 실어서 보냈다는 점에서 파발과 차이가 있다. 횃불의 주황빛 연기는 일곱 무지개 색깔 중에서 한가지 색을 이용하여 정보를 보낼 것으로, 단색광을 활용하는 오늘날의 광파 무선 통신 방식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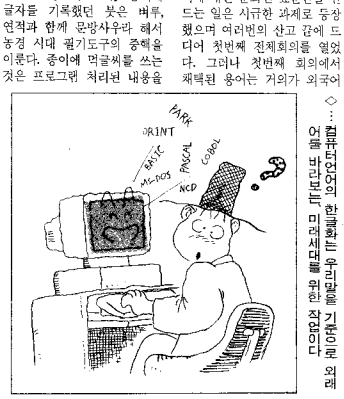
또한 고려시대의 봉화는 4개의 불기둥을 올렸으나 세종시대에 이르러 5거화 체계로 굳혔는데, 이는 오늘날의 5단위 부호화 능일하며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사례이다. 오늘날로 보면 디지탈 통신 방식의 부호 체계의 일종이며 5단위 부호는 모두 32개의 부호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음이니, 봉화의 부호 체계는 한글자모 28자를 대응시키고도 4개나 남는다. 이는 5거화 부호의 조합만으로 한글 데이터 전송이 가능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5단위 부호는 오늘날 텔렉스 통신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산기에 이용되는 2번식 글쇠판의 부호 체계나 전산 통신에 이용되는 조합형 한글 부호의 모체가 된다는 점에서 귀중한 정보 문화재의 하나가 된다.

정보를 보낼 때는 적어도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한글은 8묶음<바이트>원천 부호 체계로 조합되어 있고, 봉화는 5단위 전송 부호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것이다. 전자를 원천 부호라 하고 후자를 전송 부호 과정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글과 봉화의 부호체계는 현대 정보통신의 원조격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5단위 봉수식을 정한 세종 15년이나, 한글을 반포한 세종 28년은 정보 시대의 원년이라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고 세종은 위대한 정보공학자의 칭호를 들어 마땅한 것이다.

봉화나 한글이외의 정보 문화로서는 활자와 종이가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신라 시대때 부터 목활자를 만들어 닥종이에 인쇄하여 왔고 고려 시대에는 이미 금속활자를 고안하여 책을 찍어내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인쇄 방식을 혁신하지 못하였으며 손보기교수의 분석처럼 독일인에게 금속활자의 아이디어를 전수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종이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굳은모(하드웨어)에 해당하겠지만 연모와 같이 구체적 기계의 형태를 띠지는 않는다. 또한 종이에 글자를 기록했던 붓은 벼루, 연적과 함께 문방사우라 해서 농경 시대 필기도구의 중핵을 이룬다. 종이에 먹글씨를 쓰는 것은 프로그램 처리된 내용을 인쇄하는 것과 같다. 먹과 붓은 오늘날 컴퓨터의 입력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컴퓨터언어의 한글화는 우리말을 기준으로 외래어를 바라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작업이다

문화재의 정보공학적 분석이 한글화작업 시작
폭넓은 적용과 국가표준 전산용어 통일 과제

이상에서 우리의 역사에 나타나거나 실존했던 문화재에 대해서 이를 정보공학적 측면으로 생각해보고 주로 우리말식 전산용어로 풀이해 보았다. 비행기를 '날틀'이라고 표현하면 귀에 낯설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행기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비행기를 비기(飛機)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날틀이 된다.

현재 한문식 용어가 되조하고 영어식 용어들로 대체해 가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리말식 용어를 생각해 보는 것은 미래적 작업의 일환이지 기존의 한문이나 영어에 익숙한 세대의 몫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동시에 우리말을 기준으로 외래어를 생각하는 것이지 외래어를 기준으로 우리말을 대조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컴퓨터가 우리말의 전산기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셈틀에 해당하는 것인가 보다는 셈틀이나 전산기가 외래어로는 어떤것인가를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인가. 전산기술의 원산지는 외래적 산물이므로 물론 우리말 번역작업이 우선돼야 하겠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전문가의 일이다. 그러나 이를 우리의 기술로 토착화시키고 우리의 정서기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말을 기준으로 해서 외래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조선일보와 공동작업으로 진행하면서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금은 외도적으로 작위적인 면도 있었지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에 호소해 보자는 국어정보학회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자부한다. 이 공로로 조선일보는 정보 문화 보급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미디어의 위력은 대단해서 각계로부터 자료 요청이 쇄도했으며, 열띤 비판도 가해져 왔다. 비판의 중심 논리는 국어 순화는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토막이많은 새로운 의미 부여는 '날틀식의 작위적 조어로서 어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나 한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영어로 된 용어를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한 것인가?'에 대해서 만족을 편 사람은 없었다.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대안을 주문했지만 제시된 대안은 또다른 거부감만을 양산할 뿐이었다.

우리들은 우리말식 순화안 작성을 '원점 작업'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어나 한자말을 모르는 세대들을 위한 작업이고, 우리말을 기준으로 외래어를 생각해보자는 발상의 원점을 바로 잡아 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설사 우리말 순화안이 널리 퍼져 사용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의 준거는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또 우리시대에 이런 작업이 없었을 때 후대의 비난은 누가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력했지만 일반이 써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의 여지는 마련한 셈이다. 이른바 면피 작전이라도 가지는 있을 것이라고 자위하고 있다.

전산용어 순화안의 앞으로의 진행과정에는 몇단계가 더 남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산용어에 대한 국가 표준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업진흥청에서 제정한 한국 표준 규격이고 다른하나는 교육부가 제정한 교과서 편찬의 기준이 되는 편수안이다. 불행히도 양자의 용어들은 같지 않다. 그러나 국어정보학회가 마련한 초안이 국어 심의회를 거쳐 문화부안으로 확정 된다. 현재는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만약 이 용어가 확정이 되면 편수안이나 한국 표준규격 용어도 통일될 전망이고 필자는 그렇게 되리라 확신하고 있다.

경희 LAN이야기 ④

ABS-BBS의 활용범위

ABS-BBS를 이용하려면 모뎀이나 LAN을 통해 Khsun에 접속하신 후(자세한 설명은 연재 1, 2편을 참조하기 바람) % Khsun 상태에서 abs라고 친다. 사용에 미숙한 초보자인 경우 MAIN-MENU 중에서 1번 [서비스 안내]의 SUB-MENU [메뉴 살피기], [명령어는 이렇게], [초보자는 보세요]를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메시지를 만들려고 하면 메시지쓰기를 선택한 후, 편집기를 사용 하면 된다. 가장 사용하기 쉬운 vi편집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vi(편집기에는 command mode와 text input mode 두가지가 있다)가 실행되면 편집기는 command mode에 있게 된다. 이 상태에서 a(append)나 i(insert)를 누르면 편집 모드로 가게 된다. 이제 당신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다시 명령 모드로 가려면 esc키를 누른다.

다음은 명령 모드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들이다.

- 커서 이동 : h, j, k, l
- 텍스트 편집 : a, i
- 삭제 및 변경 : x(글자 지우기), dd(라인 지우기), r(글자 바꾸기)
- 저장하기 : zz

1. 서비스 안내 : 이 란은 각종 명령어와 메뉴에 관한 내용과 각종 공지사항, 초보자를 위한 란이 마련되어 있다.
2. 운영자 안내 : 이 란은 ABS-BBS를 사용하면서 각종 문의 사항이 있거나 더 좋은 건의 사항이 있을때 사용하는 란이다.
3. 고향글 소식 : 이 란은 단대소식, 동아리 소식, 집회, 공연을 싣는 란이다.
4. 학교생활 안내 : 학교 생활에 있어서 편리한 정보를 싣는 란이다.
5. 학교내 기초 안내 : 이 란은 격조 부실기관에 관한 내용이 있는 곳이다.
6. 학과별 안내 : 이 곳은 학과에 관한 소개와 학과의 행사 등을 보는 곳이다.
7. 생활 정보 : 이 곳은 일상 생활에 알아두면 편리한 정보를 싣는 곳이다.
8. 설을 풉시다 : 이 란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등 각 종 분야에 대한 의견을 싣는 곳이다.
9. 취업정보 :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란.

오상엽 · 윤착회
(경영시스템연구회UNIX팀)

國時鍾 국민은 못넘고 未국민은 넘고…

며칠전 미국의 한 국회 의원이 야구모자를 쓰고 소풍나온 사람의 가벼운 옷음을 띤 얼굴로 휴전상태인 그래서 더욱 민감한 우리나라의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 버렸다. 북한에서의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했던 어느 여학생이 그리도 넘어오길 열망했음에도 정부의 불허로 넘어오지 못했던 아직도 굳게 잠긴 그 선을 만이다. 그리고 그는 남한의 여느사람이 기대했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먼저 신중히 전해주기 보다는 그의 미국 선거구의 차기 대선에서 유용히 활용될 쟘문점을 배경으로한 그럴듯한 사진 찍기에 바빴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말이다. 그렇게 중요한 핵문제에 대해 그저 입장을 표명했을 뿐인 정부가 한 미국 국회의원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걸고 그렇게 굳게 닫혔던 판문점의 짐을 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간은날 똑같은 곳을 방문했던 한 소설가는 국가 보안법에 저촉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저서 소설의 영화화에 따라 받았다던 저작권료는 반 국가 단체에서 받은 장작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리고 며칠전에는 우리로 부터 많은 경제적 원조를 받았던 러시아가 동해상에 핵폐기물을 방류했다. 중지및 해명을 요구하는 우리와 일본에 대해 러시아는 국제기구에 이미 통보했을 말할 뿐이었다. 그리고 지난 21일 핵폐기물 방류를 둘연 중지한 이유는 주변국의 요구와 환경보호의 원칙보다는 환경보호를 표방하는 많은 강대국의 압력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인간사의 모든 일은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다.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그간의 처신뿐만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해관계 또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못지 않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정작 사건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오해에 휩싸이게도 된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도 다를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따르고 국제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이용하고 심지어 그 나라의 내치에까지 깊게 관여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근대및 현대의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사는 강대국들의 논의와 협상속에서 좌지우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국제현실속에서 한 국가의 주권으로 명시된 공식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고수할 수 있는 길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길뿐이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이란 침해 받을 수 없는 성역이라는 원칙이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 사회가 다원화의 물결을 타면서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이제는 더이상 강대국들의 처분만 따라서 처신하면 모든 문제가 원활한 시대는 아니다. 이미 그럴만한 강대국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이제는 자존심과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이다. 이제는 말이다. 〈박경화 記者〉

100년을 내다봅니다
100년을 앞서갑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100년을 내다 볼 줄 알고 우리의 오뚜기는 10년 앞선 제품을 만듭니다.

오뚜기

1969년. 처음 오뚜기가 선보일 때-
오뚜기는 2천년대 식생활을 내다보는
패기넘친 젊은 기업이었습니다.
카레, 스프, 케찹, 마요네즈, 라면등
수많은 식품으로 2천년대를 향한
우리 식생활을 발전시켜온 오뚜기 25년-
1993년. 오늘의 오뚜기도 여전히
100년후를 생각하는 젊은 기업으로서
미래를 향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땅의 미래를 책임지듯
언제나 생각이 젊은 기업 오뚜기는.
100년후를 생각하는 장기적 안목과
10년이상 앞선 기술로 소비자 여러분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품질에서 앞서가는 오뚜기스폼
오뚜기食品株式会社